

### 부산 3전 4기 1부 승격 체면이 선 정몽규 회장

4년 전 강등 후 구단 지원 대폭 강화  
선수들, 구단주 정회장에 감동 행가래



정몽규 회장

2019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부산 아이파크가 경남FC를 물리치고 1부 리그로 승격한 가운데 눈길을 끈 장면 중 하나는 정몽규 대한 축구협회의 행가래였다. 정 회장은

은 HDC그룹을 이끄는 기업인이자 부산축구구단 구단주다. 승강 PO 2차전(8일 창원축구센터) 현장을 찾은 정 회장은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4년 전 이맘때 정 회장의 표정은 침뚫혔다. 2015 승강 PO에서 부산은 수원FC에 1, 2차전(0-1, 0-2) 모두 졌다. 기업 구단 최초의 강등이자 K리그 4차례 우승한 축구 명가의 몰락이었다. 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팬들은 부산의 무기력한 플레이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 회장을 성토했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부족했던 관심과 투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 당시만하더라도 구단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부산은 많은 걸 잃었다. 정 회장은 공식 사과문을 내고 강등에 대한 반성과 승격을 다짐했다.

하지만 2부 리그도 만만치 않았다. 과감한 변화를 주면서 질지부심했지만 승격 문턱에서 번번이 눈물을 흘렸다. 2016시즌 5위에 그친데 이어 2017, 2018시즌 연속으로 승강 PO에 올랐지만 각각 상주 상무와 FC서울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온 2019 승강 PO.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힘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선수 구성은 경쟁했다. 또 4년 전 수원FC 지휘봉을 잡고 부산을 2부로 밀어냈던 조목제 감독을 영입한 것을 비롯해 K리그 사령탑을 지낸 이기형 코치와 노상래 코치가 벤치를 지켰다. 수원 삼성 단장과 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안기현 대표이사를 선임해 지원도 강화했다.

홈에서 열린 1차전(0-0 무승부)을 건너편 정 회장은 2차전 현장을 찾았다. 부산은 경남을 누르고 기어코 승강 PO 3전4기에 성공했다. 선수들은 정 회장에게 달려가 행가래치며 고마움을 전했다. 부산 구단 관계자는 9일 "2부 리그에서 승격하는 게 쉽지 않아 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틈틈이 경기장에 오셔서 선수들을 격려했다"면서 "회장님은 내년 시즌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양키스, 게릿 콜에 7년 약 2900억 투수 최고액 제안... MLB 윈터 미팅 '후끈'

## 콜 효과...류현진 몸값도 춤춘다



최대 관심사는 FA 대어급 투수들 행선지 슈퍼에이전트 보라스 "속전속결" 자신감 현지 언론 "류현진 연봉 힐러보다 높아야"

메이저리그는 9일(한국시간)부터 오는 13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전체 30개 구단 관계자와 에이전트, 취재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윈터미팅을 진행한다.

이번 윈터미팅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프리에이전트(FA)다. 굵직한 투수 자원들이 쏟아져 나온 이번 시장에서 '대어'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 지 벌써부터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연 '악마 에이전트'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를 모두 데리고 있는 스캇 보라스 이야기다. 보라스는 투수 게릿 콜(29), 스티븐 스트라스버그(31), 류현진(32)을 비롯해 타자 앤서니 렌던(29) 등 굵직한 자원을 보유 중이다. 그런 그가 이번 윈터미팅을 앞두고 제법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했다.

한 마디로 '속전속결'이다. 9일 미 매체인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보라스는 "이번 FA 시장에서 빠른 계약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있지만, 굳이 시간을 끌지 않고 구단의 제안에 즉각 응하겠다는 반응이다.

보라스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콜에게는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큰 제안이 들어왔다. 뉴욕 양키스가 콜에게 '7년 2억4500만 달러(약 2900억 원)'를 제시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것이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이는 역대 FA 투수 최대 규모가 된다.

'최대어'의 몸값이 폭등하게 되면 나머지 투수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중에는 물론 '코리아리거' 류현진의 계약도 포함된다. 류현진은 앞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년 1억1800만 달러에 계약한 잭 힐러와 동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현지 언론은 류현진이 힐러 보다 높은 평균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 "류현진의 평균 연봉이 힐러 보다 높아야 한다"며 그의 통산 평균자책점이 힐러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크게 강조했다. 힐러의 빅리그 통산 평균자책점은 3.77, 류현진은 2.98이다. 5년 계약을 맺은 힐러의 평균 연봉은 2360만 달러다.

이와 더불어 최근 보라스가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팀인 미네소타 트윈스와 직접 접촉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류현진의 행선지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 원 소속팀인 LA 다저스를 비롯해 지역 라이벌인 LA 에인절스, 그리고 미네소타까지 관심을 보여 한창 몸값이 상승 중이다.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는 '코리아 몬스터'는 과연 이번 윈터미팅 기간에 정착지를 정할 수 있을까. 13일까지 열리는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9일(한국시간) 시작된 메이저리그 윈터미팅이 13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다. 프리에이전트(FA)의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의 만큼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의 거취도 주목 받고 있다. 스포츠동아DB



김건모

### "김건모 2016년 성폭행"

"주점서 접대부 김씨 상대 강제 추행"  
강용석 변호사, 검찰에 고소장 제출  
김건모도 변호사 선임 맞대응 예고

가수 김건모(51)가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했다.

김건모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김 모(31)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 강용석 변호사는 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다 손님으로 온 김건모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김건모의)사실 인정과 사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변호사가 6일 제기한 성폭행 의혹에 "사실무근"이라 반박한 김건모의 소속사 건승기획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간 혐의로 고소된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용산 법륜사무소 선종문 대표변호사는 9일 "성범죄일 경우 고소인이 취하해도 관련 조사는 계속 이어진다"며 "늦어도 2주 안에 피고소인 진술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김건모는 24일 부산 등에서 여는 25주년 기념 공연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계획이다.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피아니스트 장지연(38) 씨와의 관계도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 관계자는 "장 씨와 처가 식구들은 김건모를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중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김건모가 장 씨에게 프러포즈를 하는 과정을 담은 8일 SBS '미운 우리 새끼' 방송 이후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공연을 본 관람객들도 "줄처럼 무대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유지혁 기자 yjh0304@donga.com

### 12초·80야드 '손나우두 골' 화제만발

BBC해설위원 "조지 웨아와 비스"  
EPL 16R 이주의 베스트11 선정  
손흥민 인생골 기념 티셔츠 출시



손흥민 매직골 기념 티셔츠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를 연상케 한 손흥민(27·토트넘)의 골이 연일 화제다.

손흥민은 9일(한국시간) 영국 공영 방송 BBC가 선정한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16라운드 이주의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3-4-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한 이번 베스트11 선정에서 손흥민은 조지 발록(세필드), 조던 헨더슨(리버풀), 제임스 매디슨(레스터시티)과 함께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손흥민은 8일 번리와의 EPL 16라운드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전반

32분 상대 수비수 9명을 따돌리면서 약 75m의 거리를 질주해 골을 터뜨리는 명장면을 만들어냈다. 번리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제어가 불가능했다. 이를 두고 토트넘의 조세 무리뉴 감독은 1996년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하프라인부터 돌파해 골을 기록한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두를 언급하며 "내 아들은 이전부터 손흥민을 손나우두라고 부른다. 그는 정말 호나우두 같았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번 베스트11을 선정한 가스 크록 BBC 해설위원은 1990년대 유럽 무대를 주름



토트넘 손흥민(가운데)이 8일(한국시간) 번리전에서 터트린 '원더골'의 여운이 계속되고 있다. 외신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기념 티셔츠까지 출시됐다.

잡았던 조지 웨아를 언급했다. 웨아는 현재 라이베리아 대통령이다. 크록 해설위원은 "그라운드 끝에서 끝까지 달려 수비수를 따돌리고 골을 넣은 장면은 라이베리아 대통령(조지 웨아)이 마지막이었다. 손흥민의 골이 비스했다"고 평가했다.

호나우두를 연상시키는 손흥민의 골을 기념하는 티셔츠까지 출시됐다. 미국 스포츠 테마 티셔츠 전문 업체 '브레이킹'은 'SONALDO(손나우두)'라고 프린팅이 된 반팔 티셔츠를 재빠르게 출시했다. 손흥민

의 '인생 골'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것이다. 티셔츠에는 'SONALDO(손나우두)'라는 문구 아래에 '12초·80야드(약 73m)'를 넣어 손흥민이 돌파한 거리와 골을 기록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새겨 넣었다. 이 티셔츠는 28달러(약 3만3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업체는 지난 9월 메이저리그(MLB)에서 데뷔 7시즌 만에 첫 홈런을 터뜨린 류현진(LA 다저스)을 기념하는 티셔츠도 출시한 바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